

## 휴대폰: G3, 아이폰6 그리고 갤럭시노트4

### ■ 언론들의 호평 등을 감안하면 3분기 G3 판매는 순조로울 전망

LG전자의 flagship 모델인 G3가 7월 17일부터 북미지역에 판매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출시된 후 4주 정도가 지나야 정확한 소비자반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3분기 G3의 북미 판매대수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1) 여러 언론들(영국의 ‘왓 하이파이’/‘인디펜던트’, 미국의 ‘포브스’/‘BGR’)의 호평, 2) G2 출시 이후 높아진 브랜드이미지, 3) HTC One(M8)와 갤럭시S5의 비우호적인 소비자반응 등을 고려하면 G3의 북미판매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3분기 글로벌 G3 출하대수는 기존 예상치인 300만대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3분기 LG전자 휴대폰 영업이익률이 2분기(2.4%) 대비 개선된 3.0%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치를 유지한다.

### ■ 아이폰6용 부품은 납품되기 시작, 하지만 5.5인치 아이폰6 출시일은 다소 지연될 듯

최근 일부 아이폰6용 부품들의 납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폰6용 부품들의 실적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사는 4.7인치(고가형/보급형)와 5.5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아이폰6의 3가지 모델이 9월말에 동시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여 왔는데, 최근 일부 부품들의 불량문제와 수급문제로 인해 5.5인치 아이폰6 출시일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1) 이러한 이슈는 이제까지 늘 있어왔던 문제였고, 2) 일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는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아이폰 출하대수 전망치를 75백만대로 유지하고, 관련 부품업체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 ■ 갤럭시노트4의 출시 시기는 9월말로 전망

갤럭시노트4의 출시 시기가 9월초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 달리 우리는 스펙 공개와 출시를 2013년과 유사한 시기로 전망한다. 즉, 1) 혁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스펙을 탑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2) 부품업체들의 수율 상승 및 lead-time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갤럭시노트4의 스펙 공개는 9월초로, 제품 출시는 9월말로 전망된다.

### ■ 갤럭시노트4에서 혁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메라 및 외관상의 스펙 향상이 필수

갤럭시노트4에서 혁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외관상의 스펙 향상이 필수라고 판단된다. 카메라에서는 1) capa 부족과 불량 문제로 과거에 채택되지 않았던 OIS(손떨림보정기능)와, 2)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이미 채택하고 있는 고화소 전방 카메라 등의 채택이 유력하다고 판단된다. 외관에서는 3) 벤디드(Bend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모델이 일부 출시되고, 4) 갤럭시S5 케이스와는 다른 신소재의 케이스가 유력하다고 판단된다.

### ■ 갤럭시노트4향 부품 관련해서는 OIS/신소재 케이스/전방 카메라모듈에 관심을 권고

대면적 아이폰6의 출시로 인해 갤럭시노트4의 판매에 불확실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갤럭시노트4의 부품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8월 중순부터는 삼성전자 supply chain내에서 OIS/신소재 케이스/전방 카메라모듈 생산 업체들의 실적모멘텀이 기타 부품업체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8월 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